

아시아나기, 日서 활주로 이탈 18명 부상

히로시마 공항 착륙중... 왼쪽 엔진·날개 일부 손상

日 정부, 저고도 비행 원인·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

14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73명 중 18명이 경상을 입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활주로 진입 때 비정상적으로 낮은 고도로 비행한 경위를 조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고 발생=아시아나항공과 국토교통신, NHK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4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162편(에어버스 A320기)은 오후 8시 5분께 히로시마 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기에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이 탑승했으며 승객은 한국인 8명, 일본인 46명, 중국인 9명, 스웨덴인 2명, 미국인 2명, 캐나다인 2명, 필리핀인 1명, 러시아인 1명, 베트남인 1명, 싱가포르인 1명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기는 이번 사고로 18명이 가볍게 다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일본 언론은 2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소방당국의 집계를 전하고 있다. 경상자 18명은 일본인 14명과 한국인·중국인 각각 2명이다.

이번 사고로 기체에서 불길이 일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소방대가 출동해 곧 진화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항공기가 멈추고 나서 비상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으며 이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은 승객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기는 동서 방향으로 약 300m에 달하는 활주로의 중간 지점에서 남쪽으로 수십 m 떨어진 풀밭에 정지했으며 왼쪽 엔진과 날개 일부 등이 손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고 항공기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은 “착륙 전부터 크게 흔들렸고 착륙 순간 튕기는 현상이 있었다”며 “엔진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이 보였고 기내에 연기가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사고기를 운항한 기장의 총 비행시간은 8233시간, 부기장의 비행시간은 1583시간이다.

◇사고 원인 조사=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고기가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 약 300m 전방에 위치한 6m 높이의 전파 발신 시설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시설은 통상의 착륙 코스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기체가 통상의 경우 있을 수 없는 저고도로 비행한 원인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또 히로시마현 경찰 당국은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로, 현장 검증을 포함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NHK가 전했다.

아시아나기 히로시마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교도통신은 사고기가 보통의 다른 항공기와 달리 착륙할 때 활주로 동쪽으로 진입함에 따라 공항의 정밀계기착륙장치(ILS)가 대응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성 등에 따르면, 히로시마공항은 안개나 구름이 잘 끼는 것으로 유명해 ‘카테고리 3(CAT3)’으로 불리는 높은 정밀도의 ILS를 갖추고 있다. 또 히로시마 공항의 ILS는 통상 활주로 동쪽 안테나에서 서쪽을 향해 전파를 내며, 그에 따라 착륙 항공기는 활주로 서쪽으로 진입해왔다.

한편,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번 사건을 항공사고로 규정했으며 운수안전위원회

는 15일 항공사고 조사관 3명을 히로시마 공항에 보내 조사할 예정이다.

히로시마현 경찰본부는 긴급사태 대책 본부를 설치했으며 한국 국토교통부도 조사반을 현지로 파견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 사고대책 본부를 가동했으며, 국토부도 아시아나항공 종합통제실에 조사관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기는 현대해상 등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와 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고, 해외 보험사에 재보험이 들어 있다. /연합뉴스



14일 밤 일본 서부 히로시마 공항 착륙중 활주로를 벗어난 아시아나항공 162편(에어버스 A320기) 옆으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사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여객기의 엔진이 손상된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반기문 총장 “대니얼 크레이그에 인류생명 구하라”

유엔 ‘지뢰제거 특사’ 된 제임스 본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영화 007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 역을 맡은 영국 배우 대니얼 크레이그(47)를 유엔의 첫 ‘지뢰제거 특사’로 임명했다.

반 총장은 이날 크레이그 특사에게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는 ‘살인면허’를 갖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유엔 지뢰제거 특사로서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면허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제 크레이그 특사는 “유엔의 첫 지뢰제거 특사로 임명돼 영광”이라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크레이그 특사의 임기는 3년이다.

이날 반 총장은 크레이그 특사가 007 영화에서 자신을 “내 이름은 본드...제임스 본드”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빗대어 “내 이름은 반...기문 반”이라고 소개해 좌중의 웃음을 유도했다.

‘본드’의 원어인 발음이 ‘드’가 들리지 않는, 반 총장의 ‘반’과 비슷한 ‘본’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반 총장은 “내가 유엔 8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008’로도 통한다”고 결들이자 크레이그 특사는 “영화 제작사에 부탁해 반 총장을 008로 공식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제사회는 모든 대인지뢰의 생산·사용·비축·이동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오타와 협약을 1999년 발효했다. 협약에는 162개국 가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오타와 협약에는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9월 성명을 내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저장·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해 전 세계에 걸쳐 40만 개의 지뢰와 폭탄, 2000톤 이상의 폭발물을 제거했다.

이날 특사로 임명된 크레이그는 현재 자신이 본드 역으로 출연한 네 번째 영화, ‘007 스펙터’를 촬영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美 대선 출마 힐러리 선거캠페인 동영상

러시아 TV방영서 ‘18禁’ 경고 문구

“反 동성에 홍보 법 저촉 우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첫 번째 선거캠페인 동영상 ‘18세 이상 시청가’라는 경고 자막을 단 채 러시아의 한 TV를 통해 방영됐다.

러시아의 민영 ‘레인 TV’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클린턴 전 장관의 첫 캠페인 동영상을 방영하면서 러시아의 반(反)동성에 홍보에 관한 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18금’ 경고 문구를 달았다고 미국 CNN이 지난 14일 보도했다.

해당 선거 캠페인 동영상은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주말 2016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배포된 것으로, 두 남자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약 5초 정도 담겼다. 동영상 속의 한 남성은 “올 여름 내가 진실로 소중히 여기는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거야”라고 말한다.

이 방송사의 한 대변인은 CNN과 인터뷰에서 18금 자막을 붙인 이유에 대해 “미성년자들에게 비전통적 성관계를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들이 듣는 거리내에서 동성애자의 권리와 동성

애 관계를 논의하는 것을 금지한, 논란 많은 법률을 위반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법에 대한 선례가 없어서 우리는 이 법 아래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서 “따라서 레인TV에 대한 감독국의 감시가 특히 심각한 이 시기에 이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18금 자막을 (자발적으로) 화면에 넣었다”고 말했다.

상원의원과 영부인 출신인 클린턴 전 장관은 2013년 초 “동성애 권리는 인권이며 인권은 동성애 권리다”면서 처음으로 동성애 결혼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해 7월 의회를 통과한 반동성에 홍보에 관한 법에 서명, 전 세계적으로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인권운동가들은 더 나아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고 전세계의 수많은 숲집이 항의의 표시로 러시아산 보드카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지중해의 ‘봄 악몽’...이탈리아 가던 난민선 전복 400명 익사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 약 400명이 지중해 해상에서 전복사고로 익사했다.

14일(현지시간) 국제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과 국제이주기구(IOM) 등은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인 12일 지중해에서 전복돼 40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난민선에는 550명 정도가 타고 있었으며 익사자들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일부 포함됐다. 난민

선은 리비아 해안을 떠난 지 만 하루도 안 돼 사고를 당했으며 이탈리아 해안경비대가 13일 현장에 출동, 144명을 구출하고 시신 9구를 수습했다.

구조된 난민들은 이탈리아 남단의 항구 도시 레지오 칼라브리아로 옮겨졌다. 이탈리아 당국은 공중과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생존자를 더 찾지는 못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난민의 수가 급증, 대량

인명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 당국에 따르면 10~13일 사이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만 8500명에 달한다.

유럽연합(EU) 국경수비대 프론텍스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50여만 명의 난민이 리비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전과 가난을 피해 새 삶을 꿈꾸는 난민들은 대체로 시리아와 에리트레아, 소

말리아 출신이다. 최근 혼란이 심화하는 리비아에서도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IOM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은 3072명으로 2013년의 700명보다 크게 늘었다.

2000년부터 계산하면 2만2000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다 숨졌다. 지난해 유럽에 불법입국한 난민은 28만 명에 달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빌딩 신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 대전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